

매일일보

HOME > 전국 > 인천·경기

연천, 2021 지구라트 페스티벌(Ziggurat Festival) 개최

김수홍 기자 | 승인 2021.10.15 11:10



2021 지구라트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DMZ피스브릭 하우스 사진=연천군

[매일일보 김수홍 기자] 연천군이 전곡읍 은대리 DMZ 피스브릭 하우스(폐 벽돌공장)에서 1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, 사전 프로그램인 2021 Ziggurat Festival을 개최한다.

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팬 데믹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'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'고찰을 위해, 생명과 노동(Life and Labor), 신화와 문명(Myth and Civilization), 평화의 바람(Wish for Peace), 인간과 자연(Human and Nature)을 주제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.

한편, 은대리 폐 벽돌 공장은 1987년부터 (주)신 중앙요업 벽돌공장으로 운영하다 지난2001년 폐업한 이후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DMZ 거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.

저작권자 ©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수홍 기자